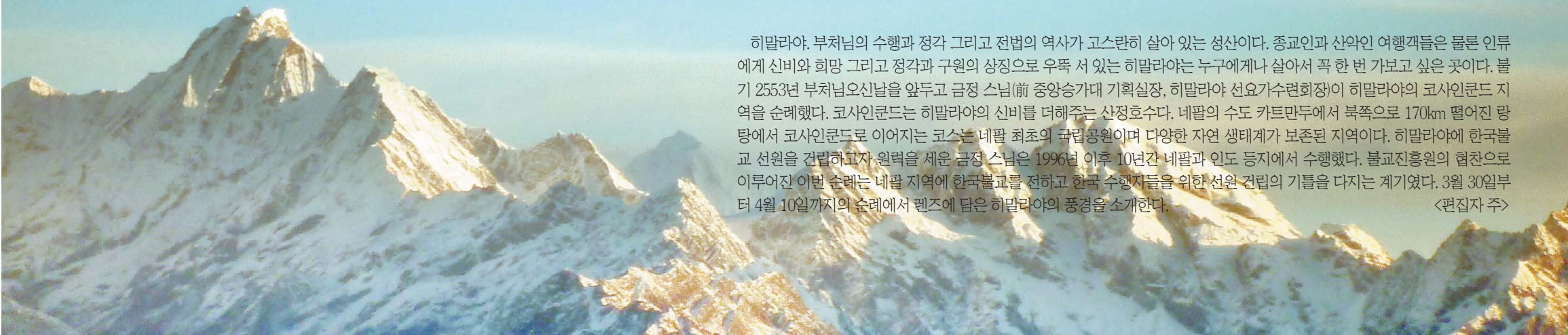


活! 히말라야, 온 생명에 전하는 깨침의 메시지



히말라야. 부처님의 수행과 정각 그리고 전법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성산이다. 종교인과 산악인 여행객들은 물론 인류에게 신비와 희망 그리고 정각과 구원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는 히말라야는 누구에게나 살아서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금정 스님(前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히말라야 선유가수련회장)이 히말라야의 코사인쿤드 지역을 순례했다. 코사인쿤드는 히말라야의 신비를 더해주는 산정호수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70km 떨어진 랑탕에서 코사인쿤드로 이어지는 코스는 네팔 최초의 국립공원이며 다양한 자연 생태계가 보존된 지역이다. 히말라야에 한국불교 선원을 건립하고자 원력을 세운 금정 스님은 1996년 이후 10년간 네팔과 인도 등지에서 수행했다. 불교진흥원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이번 순례는 네팔 지역에 한국불교를 전하고 한국 수행자들을 위한 선원 건립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였다.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순례에서 렌즈에 담은 히말라야의 풍경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① 해가 떠 아침을 맞은 랑탕의 모습이다. '긴 허'라는 뜻의 랑탕 계곡은 1949년 랑탕을 처음 탐험한 영국의 탐험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고 말했던 곳이다.
- ② 해발 3510미터 지점의 띠레파티 마을은 따마족들이 살고 있는 곳. 이들은 모두 불교도들이다. 그들의 마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순례객들은 히말라야의 정엄한 봉우리를 우러르며 아침 예불을 올렸다.
- ③ 히말라야에도 우리나라 지리산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본 듯한 계단식의 다랑논이 있다.
- ④ 이렇게 높은 곳(해발 4380m)에 이런 호수가 있다. 그저 감동스러울 뿐인 코사인쿤드 호수. 눈이 녹아서 이루어진 호수다. 히말라야 사람들에게 이 경외의 호수는 문수보살의 주처로 알려져 있다. 하늘에서 가까운 탓인지 물빛이 하늘보다 푸르다.
- ⑤ 코사인쿤드 호수 바로 아래 지역에서 돌탑을 쌓았다. 세상의 온갖 욕망이 히말라야의 바람에 씻기고 모든 생명이 참자유를 누리길 기원하며.
- ⑥ 지대가 높고 재화가 충분치 않은 히말라야에서는 큰 가람을 세울 수 없다. 그러나 저 우뚝한 봉우리들을 향하여 불보살의 명호를 불러 놓고 귀의하는 마음만은 눈처럼 희고 바람처럼 맑다.
- ⑦ 고평과 라우르비나야크 중간 지점, 해발 3700미터 지역에서 본 타르초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타르초는 티베트어로 경전을 써 넣은 천을 깃발처럼 매단 것이다.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지기를 염원하는 히말라야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높디랴게 펼쳐지는 것이다.
- ⑧ 등대에서 코사인쿤드를 향해 올라가는 초입에서 꽃을 만났다. 정열적인 색의 이 꽃 이름은 '라리구리스'이며 네팔의 국화다. 히말라야에 널리 퍼져 있으며 3~4월이 꽃의 절정기다. 색깔도 빨강 노랑 하양으로 다양하다. 벌들이 이 꽃의 꿀을 따다가 가파른 절벽에 매달아 놓은 벌집에 저장하는데 그 꿀이 유명한 히말라야 석청이다.
- ⑨ '죽어 천년 살아 천년'이라는 주목은 랑탕 계곡의 장관 중에서도 명물급이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주목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히말라야의 숲에서는 나무들만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모아 이루어진 진짜에게 생명의 합창을 들을 수 있다. 주목 숲에서는 시간이 멈춰 선 듯한 느낌을 받는다. 글 · 사진:금정 스님(포전 불국정사주지)

나누는 기쁨 함께 하는 세상

내 한마음 깨우치면
오늘의 내마음이 영원한 오늘이요
부처님 오신날일세

원장 대 행 /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음 선원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 031-470-3100 /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총부 읍성군 금왕읍 무곡 4구 산 5-2
TEL : (043)877-5000 /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41)852-9100 / FAX : (041)852-9105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 FAX :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 (043)259-5599 /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 : (054)555-8871 /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New York (미국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미국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미국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미국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FAX : (1-416)701-1359
-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아르헨티나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 Sao Paulo (브라질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Brasil
TEL : (55-11)3337-5291